

# 퇴비 '최고품질이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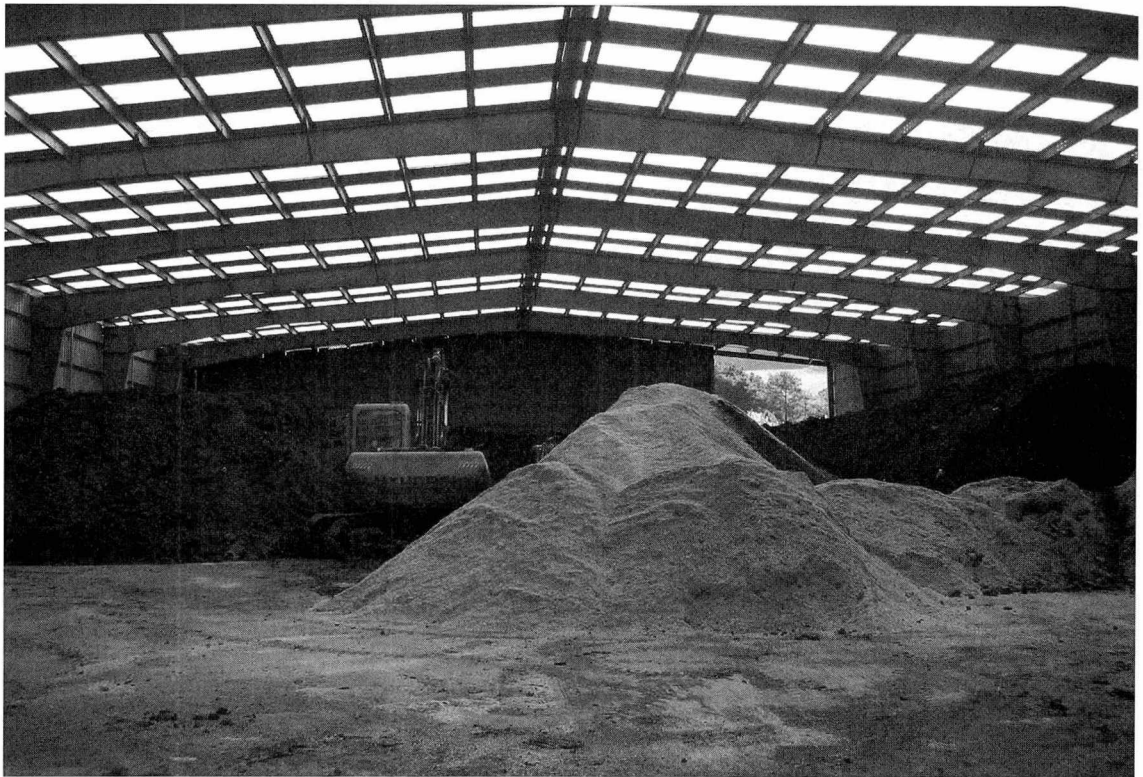
## 시설 재투자 및 확장·수분조절재 등 원가관리 어려워

글·사진 : 장 두 향 (농수축산신문 기자)

전북 남원의 지리산낙협 축분퇴비공장은 지리산 줄기 운봉자락 중턱에 위치해있다.

육성우 농장, 섬유질 배합사료공장과 함께 위치한 이 곳은 젖소의 우분을 주원료로 연간 6,000톤

의 퇴비를 생산하는 곳이다. 동시에 품질만은 써본 사람이 더 알아주는 퇴비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다.



축분을 EM제제, 톱밥 등으로 혼합하는 장면

## 써 본 사람만이 알아주는 퇴비

지리산낙협 축분 퇴비공장의 생산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3년 4,198톤이던 퇴비생산량은 2004년 4,352톤으로, 2005년에는 5,510톤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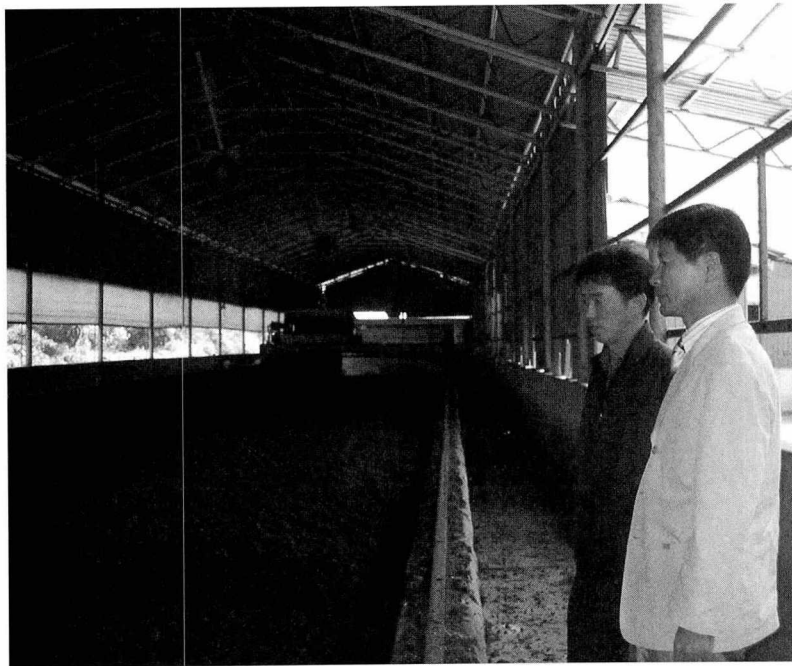
노환국 지리산낙협 상무는 “생산된 퇴비는 인근 농협 등을 통해 하지감자와 같은 채소·특작 농가에서 쓰인다”며 “오래 써 본 농가들은 지력이 확실히 다르다며 우리 퇴비를 찾는다”고 전했다. 다만 원가가 일반 퇴비공장보다 높아 주 소비처인 농협 판촉시 어려움이 따른다고 노 상무는 말한다.

물론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공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입고된 축분은 EM제제, 톱밥 등과 함께 포크레인으로 뒤섞여 발효된 후 2차 가공장으로 이동된다. EM제제는 전복



포장 직전의 완성된 퇴비



2개월간의 교반과정을 요한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합해 생산하는 친환경 미생물제제로 냄새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장운영전략은 최고품질 퇴비생산

1차 공정의 관건은 수분 조절. 젖소의 분뇨는 다른 축종에 비해 수분함량이 높아 건조과정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때문에 축사에서부터 분뇨가 충분히 건조돼서 오면 공장 효율에 큰 도움이 된다고



차량으로 입고되는 포장 퇴비



출하되는 지리산낙협 스테비아부산물 퇴비

한다. 이렇게 건조·발효된 축분은 길이가 20m에 달하는 2차 가공장에 운반, 공기를 공급받으며 교반기로 잘게 부쇄진다. 2개월여가 소요되는 이 과정을 통해 축분은 명실공한 퇴비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노 상무는 “수천만원대의 교반기를 쓰기보다 바람만 통하게 하는 것이 상당수 퇴비업체의 관행”이라며 “그러나 농협 이름을 걸고 대충 만들 수가 없어 원가상승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차 가공과정에서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를 첨가해 퇴비의 당도를 높이고, 최종 포장 공정 직전에 이물 검출기를 통과시키는 점도 지리산 낙협만의 차별화된 공정이다.

### 향후 과제

하지만 아무리 높은 품질의 퇴비를 생산한다 해도 퇴비공장의 입지는 모래성 같은 것이 현실이다. 노 상무는 “높은 원가와 전체 조합원의 축분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생산구조, 퇴비수요 특성상 보관기간이 길고 회전율이 낮은 점 등은 공장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정책 기조가 액비중

심으로 가면서 퇴비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 관련 대책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지리산낙협은 이에 따라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면서도 원가절감을 시도할 수 있는 ‘맞춤형 퇴비 생산’을 계획하는 한편, 시설 확장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박인석 지리산낙협 조합장은 이와 관련 “선임조합장의 선견지명으로 199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공장의 시설이 전체 조합원의 축분을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내 낙농가의 원활한 축분처리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상생을 통한 자연순환형농업 실현을 위한 기존시설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향후 낙농산업 뿐 아니라 축산업은 환경, 원활한 축분처리가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품목축협으로서 앞장서는 자세로 공장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리산낙협 퇴비공장의 미래도 그 곳 지리산 줄기 운봉자락 중턱의 풍광처럼 더욱 트이기를 기대해본다. ☺